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4100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0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정성호 · 김남희
박희승 · 이성윤 · 김우영
이기현 · 김남근 · 허영
천하람 · 황운하 · 임미애
강득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6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중 “개인정보처리자가”를 “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”로, “침해받은 사람은”을 “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62조(침해 사실의 신고 등) ① <u>개인정보처리자가</u>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 리 또는 이익을 <u>침해받은 사람</u> <u>은</u>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 을 신고할 수 있다. | 제62조(침해 사실의 신고 등) ① <u>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---</u> ----- ----- <u>침해</u> <u>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--</u> ----- -----. |
| ② ~ ④ (생 략) |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